

익산 주요 관광지 관광객들에게 눈길

문화예술거리·합라한옥체험관·보석박물관서
공연·체험 등 볼거리·즐길거리 다채

익산 문화예술거리, 합라한옥체험관, 보석박물관 등 익산지역 주요 관광지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익산역 근처 문화예술거리에서는 토요일 프로그램 놀토가 12월까지 진행되며 볼거리로 가득해지는 토요일을 테마로 미니 골목 콘서트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버스킹 공연, 대학 동아리 공연, 국악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는 작은 명동으로 불리던 '영정봉 1977 그때 그 시절 골목놀이 사랑치기'와 신발양공,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골목기차상점에서는 골목골목 프리마켓이 열려 간단한 간식 및 음료, 소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옛날 교복이나 교련복을 골라서 입어 볼 수 있는 영정봉 1977 의상체험이 가능하다.

만석지기 삼부자가 살았던 합라마을 합라한옥체험관에서는 12월까지 매일 셋째 주 토요일에 합라한옥상

설공연이 열린다.

또한 합라한옥체험관 내에 있는 아홉마디향기 찻집에서는 전통차, 제철 과일청, 커피 등을 마시고 합라도문대작 식당에서 시골백반, 닭백숙, 한우곰탕 등을 맛볼 수 있다.

특히 안채, 사랑채 등 한옥에서 숙박체험, 천연화도연식, 떡 만들기 등 다채로운 전통체험을 할 수 있고 한복 대여가 가능해 아름다운 볼거리와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인생샷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보석박물관에서는 보석테마관광지 상설공연 및 체험행사가 6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악기연주, 노래 등 상설공연이 열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웨딩영상 대여, 보석 팔찌 만들기 등 무료체험 행사가 열린다.

더불어 6월 공연은 오는 16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색소폰, 난타, 고전무용, 민요 메들리 등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웅포 캠핑장에서 16일 오후 4시 관광객을 위한 색소폰과 통기타, 난타, 벨



익산역 근처 문화예술거리에서는 토요일 프로그램 놀토가 12월까지 진행되며 볼거리로 가득해지는 토요일을 테마로 미니 골목 콘서트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버스킹 공연, 대학 동아리 공연, 국악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리댄스 등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익산시에는 순환형, 테마형, 전국체전 개최지로서 체전형 등 다양한 익산시티투어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말과 연휴에 익산시 시티투어를 타고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있는 익산여행을 한다면 가족과 연인들의 사랑의 온도가 +1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농촌체험프로그램 7-8월 3개 정보화마을서

익산시가 도시민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재미를 주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이 7-8월에 3개 정보화마을에서 진행된다.

농촌체험을 통해 마을 특산물인 참외, 토마토, 감자, 옥수수 등을 직접 수확해 시작해볼 수 있고 숙제목을 직접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산지에서 생산한 질 좋은 과일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편 익산시 정보화마을은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된 이후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체험문의 및 접수는 어량정보화마을 (<http://eoryang.invil.org/>, ☎063-859-3837), 두여정보화마을 (<http://dy.invil.org/>, ☎063-881-1168), 두동편백정보화마을(<http://dd.invil.org/>, ☎063-862-880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희망근로 지원 사업 600명 참여자 모집

실직자·취업취약계층 등 지원 고용위기 극복 기대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및 가족,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2018년 하반기 희망근로 지원 사업 참여자 총 600명을 모집한다.

하반기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며, 고소득 및 고액 자산가 1세대 2인 참여자, 중복·반복 참여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고용상채 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월 평균 115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며, 만 65세 이상은 1일 3

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454-4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내년도 공공일자리 사업 국도비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장경호 시의원 후보 재검표 끝에 2표차 당선

13일 최종 개표 결과 한때 1표차로 낙선한 것으로 전해진 장경호 민주당 평화당 시의원 나선거구 후보가 재검표 끝에 2표차로 이긴 것으로 최종 결정돼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장경호 후보는 선관위 최종 개표결

과 1,424(1,089) 표를 얻어 1,425(10,90)를 획득한 같은 당 최병모 후보에게 불과 1표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4일 새



벽 선관위 재검표 결과 3표가 발견돼 결국 2표차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최종 개표 결과 장경호 후보는 1427표, 최병모 후보는 1425표를 획득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상식과 원칙의 승리... 익산발전에 매진”

정현을 익산시장 당선 소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결과는 저 정현을의 승리가 아니라 익산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이 권력을 이겼습니다. 상식과 원칙의 승리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경쟁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 후보님을 지지하신 분들의 뜻도 함께 존중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반복과 갈등, 분열과 대립을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날 승리는 지난 2년 익산시정을 평가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오직 '시민과 익산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소통과 화합, 통합에 앞장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함께 희망의 익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거기간 시민 여러분에게 들었던 많은 말씀 제가 시민들께 드린 많은 약속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30만 익산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 정현을,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가려는 길을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앞만 보고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후된 익산의 현실, 성장하는 미래로”

김정수 전북도의원 당선 소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익산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제

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앞장서겠습니다.

익산의 낙후된 현실을 성장하는 미래로 바꾸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익산시의회 비례대표 3명 당선... 모두 여성

3명을 선출하는 이번 6.13지방선거 익산시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임선, 이순주 후보와 정의당 유재동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오임선 후보(35)는 민주당 전북도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이순주 후보(54)는 원광대학교 한국대외연구소 연구위원과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정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텃밭인 익산에



(사진 왼쪽부터) 유재동, 오임선, 이순주 당선인

서 정의당은 유재동 후보(63)를 단일 비례대표로 내세워 성공을 거뒀다.

유 후보는 현재 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를 맡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 Dream Hub GUNSAN

꿈을 향한 열정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제5회 한옥마을 품바왕명인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